

# 신경증

## 不安 걱정등이 主症狀

우리를 귀에 익숙한 신경증(神經症 Neurosis)은 정신의학의 역사상 Freud의 역동적 이론에 의하여 정립되었다. 정신병(psychosis)이 현실검정 능력이 없고, 망상, 환각, 연상장애, 심한병적 감정, 자폐적인 사회성이 주된 증상으로 환자는 자신이 환자라는 병식이 거의 없으므로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는 수가 많다. 반면 신경증은 불안, 우울, 걱정 등 감정상태가 주된 증상이기는 하나, 격심하지 않고 현실검정능력이 있고, 망상, 환각, 사고장애가 없으며, 자신이 병적임을 알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해 가는 수가 대부분이다.

Freud는 신경증적 장애가 성적인 욕구의 억압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특히 히스테리는 외디프스 콤플렉스와 관련되었다. 이후 성적욕망, 이외에도 공격성의 억압까지 추가시켰다. 다른 학자들은 보다 확대하여 사랑과 미움, 열등의식 나아가 실존적 공허, 의미의 상실, 최근에는 스트레스같은 광

범위한 개념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성적이던, 공격적이던, 실존적 무의미이던 간에 이러한 심리적 갈등이 마음에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불안을 느끼게 된다. 불안은 마음에 무슨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경제적인 신호로 정의된다. 이때 무슨 일이란 무의식에 억압된

포대상에 따라 병명이 붙는데 대체로 그 무의식적 불안내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어린이들의 동물공포가 대표적인데 대개 동물은 무서운 아버지를 상징한다. 성인의 공포 대상은 고소, 폐소, 광장, 피, 사체, 칼같은 뾰족한 물건 등이다. 건강염려증은 몸에 무슨 병이 있지 않나 걱정하는 것

### “창피하다고 精神科 찾지 못하고 醫師소핑등 낭비하지 말도록”

### 공황發作만성화되면 우울증 알콜中毒 약물남용 등에 빠지기 쉽다 정신分析과 지지적精神치료 받아야

충동, 갈등 등이 표면화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다. 불안이 모든 신경증의 기본 원인이다. 불안이 그대로 나타나면 불안신경증이 되는데 이때 불안과 더불어 심계항진, 호흡곤란, 진땀 등 신체증상이 동반된다. 불안을 억압하는 방어기전이 강하게 작용하여 모든 다른 감정이나 사고, 신체 활동까지 억압하게 되면 우울 신경증이 될 수 있다. 불안을 신체기능의 장애로 표현되는 것을 히스테리전환반응이라 하는데 이때 운동기능의 마비, 감각의 상실, 경련, 기절, 통증 등이 나타난다. 환자는 주위의주의를 끌고 증상에 대해 무관심한것이 특징이다. 불안을 잊기 위해 기억상실, 이중인격같은 정신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히스테리해리반응이라 한다. 불안을 억제하기위해 무의식적으로 댄 생각이나 다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것을 강박신경증이라 한다. 이때 「책상 다리는 왜 4개라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반복 생각하거나 손은 하루 수십번 씻어야 직성이 풀리는 행동을 한다. 본인은 그것이 불합리한 짓이라는것을알지만억제할 수가 없다. 불안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공포증과건강염려증이다. 공포증은 원인으로서는 불안대신 아는 대상에대처하여 공포로서 느낀다. 그공

으로 자신의 불안과 우울을 상징화하고 있다. 이들은 흔히병원과 의사들을 전전하여 소위 의사소핑을 한다. 신경증이 나타남으로 환자는 당장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1차적 이득을 얻으며, 동시에주위의 관심을 끌고 어려운 입장에서 피할수있는 2차적 이득까지 향유할수 있어 쉽게낫게되지 않는다. 최근 많은 정신질환에서 심리적 원인보다 생물학적 원인이 밝혀짐에 따라 신경증에서도 생물학적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불안에는 흔히 항불안제를 쓰는데, 어떤 종류의 급성불안, 즉 이유없이 갑자기 불안공포가 엄습하며, 가슴이 뛰고, 숨막히는 등 하며, 급방 죽을것 같은느낌이 드는 소위 공황발작(panic attack)에는 뜻밖에도 항우울제가 효과 있음이 주목되었다. 그리하여 이 공황장애가 몇번 엄습하다 보면 또 그렇기와 걱정하는 예기불안이 늘 있게된다. 대조적으로 이에 기불안은 기존 불안의 개념과 부담되며, 항불안제도 치료된다. 또한 그 공황발작이 있었던장소에는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 회피행동을 하고 겁내며, 또한 자있으려 하지 않는 입장공포증(agoraphobia)을 갖게 된다. 이 공황발작이 만성적이 되

精神障碍 眞實한 患者가 늘고 있다  
어떻게 處理하면 좋을까



閔 聖 吉  
〈延世醫大〉  
精神科교수

면 우울, 알콜중독, 약물남용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공황장애는 교리학적이나 생화학적으로 기존 불안과의 개념이 틀리다는 것이 가정되었다. 어떤 생물학적인 전이 있어 어떤 사건에 의해 방아쇠를 당겨졌을때 공황발작이 일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보며, 그 생물학적 기전은 타고난 것으로 아마도 동물이나 영아가 밀착되었던(attached) 어머니로부터 격리될때 나타내는 감정반응 즉 이별불안(separation anxiety)과 생물학적인 관련이 있으리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다. 입장공포증의 개념이 생기면서 공포증도 개념이 분화되었는데 즉 단순공포증과 사회공포증이다. 단순공포증은 기존 공포증과 대동소이하다. 사회공포증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데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으로, 연설, 무대등을 죽어라하고 피한다. 사람대할때 얼굴붉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히스테리전환반응에서도 고전적 증상과는 다소 틀린 신체화반응과 심인성통증장애로분화되었다. 신체화장애란 일상생활전에 일정한 숫자의 신체증상을 만성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심인성통증장애는말 그대로 심인성통증의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전쟁, 강제수용소, 천재지변, 교통사고, 기타 개인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던 일을 겪은후 계속 그 관련된 회상이 된다거나 악몽을 꾸다거나 하는 신경증적 증상이 나타날때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 부른다. 이리하여 이제는 신경증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신경증개념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최근 미국정신의학회 1980년도 새로운 분류에는 신경증이라는 용어도 살아지고 없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아직 국제적으로는 국제질병분류에서보듯이 신경증의 개념은 남아있어 넓은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치료는 정신분석, 지지적 정신치료, 그리고 약물치료가 주된 방법이다. 그러나 공포증에서는 조건반사이론을 응용한 행동치료도 사용된다. 많은 신경증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무엇인지 모르고 또 알더라도 창피하다 하여 정신과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사소핑등 낭비가 많다. 그러므로 의료계와 사회전반에 걸쳐 계몽이 더욱 필요하다.

# 한국에도 이제 맥주효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맥주효모제품  
(제조허가번호: 보사부 제27호)  
(품목허가번호: 보사부 제1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3-4 3층

- 맥주효모는**
- 간장피해예방인자
  - 혈당조절인자(GTF)
  - 발암억제인자
  - 위장강화인자
  - 고혈압조절인자
- 를 갖고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포마®는**  
맥주효모의 고유한 쓴맛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제(錠劑)로 만든 영양등식식품입니다.

**(주) 한국바이오에너지는**  
맥주효모제품 리포마®의 생산 및 보급에 대단한 공지와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